

음식·숙박업의 비명

경기침체에 매출 급하락
운영비 없어 빚내 유지도
1분기 매출 1조원 증가
2금융권 몰려 줄도산 우려



#1. 광주시 광산구 첨단지구에서 생선국이 술집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계속된 경기침체와 혼자 적당히 집에서 술을 마시는 '혼술족'이 늘면서 가게의 매출이 뚝 떨어졌다. 이에 A씨는 빚을 내 광주시 북구 운암동에 조그만 식당을 개업해 '투 집' 형태로 2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역원)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문제는 음식·숙박업은 대표적인 서민 자영업자들이 주로 창업하는 업종이라는 점이다. 끌어 올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는 서민들이 창업을 하다 보니,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2. 나주시 빛가람동에서 3명이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B씨도 최근 은행 대출을 받았다. 빛가람동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상가 월세도 비싸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생각처럼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가게 운영비로 쓰기 위해 빚을 낼 수밖에 없었다.

관련 업종의 경기 전망도 어둡고, 과도한 빚으로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몰리고 있어 자칫 줄도산할 수 있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음식·숙박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되지 않아 빚을 내고, 또 이 빚을 갚기 위해 다른 대출을 받는 '빚의 악순환'에 갇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 음식·숙박업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작년 4분기보다 1.6% 줄었다. 분기별 증감률이 작던 4분기(-1.4%)에 이어 2분기 연속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충격이 컸던 2015년 2분기(-1.9%)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나쁜 수준이다.

11일 한국은행의 산업대출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음식·숙박업의 대출 잔액은 46조7945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9933억원(2.2%) 늘었다.

특히 음식·숙박업 대출금에서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계 금융기관의 대출 잔액은 지난 3월 말 12조485억원으로 석 달 사이 6358억원(5.6%) 늘었다. 증가 규모가 1분기 은행권(3574억원)의 2배에 가깝다.

산업대출은 기업(개인사업자 포함)과 병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등이 은행,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말한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올해 1분기 음식·숙박업 대출 증가액은 작년 4분기(1조7200억원)보다 크게 줄었지만, 작년 1분기(7875억원)에 견줘 258억원(2.1%) 늘었다.

보해 부라더#소다 캔 제품 리뉴얼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의 부라더#소다가 성수기인 여름을 맞아 올로(Yolo:You Only Live Once) 트렌드를 내세운 새 마케팅 캠페인을 시작한다. 보해양조는 '한번뿐인 인생, 지금을 즐기라'는 올로의 의미를 반영해 패키지 리뉴얼을 필두로 부라더#소다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즐기는 '올로족(YOLO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리뉴얼 된 부라더#소다 소다맛, 사과맛 캔 제품은 이번주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판매된다.

주인 부라더#소다가 올로 트렌드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제품 콘셉트를 강조한 디자인으로 새롭게 출시하기로 했다.

부라더#소다는 2015년 9월, 출시돼 국내 탄산수 시장을 새롭게 열며 출시 2년 만에 1000만 명이 팔리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보해는 알코올 도수 3도의 저도

보해양조는 무더운 여름철, 시원하고 간편하게 즐기기에 좋은 355ml 캔 형태의 부라더#소다 밀키소다와 풋사과 맛을 시작으로, 나머지 제품들도 순차적으로 리뉴얼 할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

금호건설, 계림2구역 재개발 최저가 입찰

평당 공사비 375만원... 선정시 세대당 6천만원 혜택
현대·SK, 롯데, 동양건설 4파전... 17일 시공사 선정

■광주 주택재개발 계림2지구 위치도



지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물량난까지 겪으면서 시공사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광주 지역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처음으로 3.3㎡(평)당 400만원 넘는 공사비가 나와 '거품' 논란도 일고 있는 실정이다.

프리미엄사업단 408만9000원, 롯데건설 413만5000원이다. 공사비 산정기준일은 현대·SK프리미엄사업단과 금호건설은 착공시점, 롯데건설과 동양건설사업은 입찰일이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계림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지난 달 시행한 시공사 입찰 마감 결과 금호건설과 현대·SK프리미엄사업단, 롯데건설, 동양건설사업 등 4개 업체가 참여했다.

가장 낮은 공사비를 제시한 금호건설은 금호가 시공사로 선정되면 전체 공사비가 264억원(연면적 7만7809평 기준) 이상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계림2구역은 두산위브아파트와 광주교육대학 사이(계림동 1340번지 일원) 단독 주택 밀집지역으로, 총면적 8만6661㎡에 지하 2층, 지상 19~26층 15개동 1715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441명이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다른 업체에 비해 공사비가 적어 개발이익이 그만큼 늘어난다"며 "공사비를 비교해보면 금호건설이 선정될 경우 조합(441세대)은 세대당 6000만원 이상 혜택을 본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평당 공사비는 금호건설이 375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동양건설사업 384만8000원, 현대·SK

이와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입찰에서 가장 눈에 띈 점은 공사비가 지역에서 처음으로 평당 400만원을 넘은 것이라며 그만큼 조합원의 개발이익이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발이익이 축소할 것 아니냐"며 "재개발을 하면서 조합원의 이익을 누가 가장 많이 가져다 주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조합원 김모씨는 "공사비가 높으면 개

호건설과 동양건설사업이 각각 무상으로 30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조합원 이모씨는 "한 업체가 이주 시 조합사업비로 1500만원, 입주 시 35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마치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핑수를 부리고 있다"며 "이사비용은 결국 조합원 부담으로 돌아와 조합원을 무시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시공업체가 조합원들의 이주비를 산정한 방식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조합원 이주비는 금융기관에서 담보가치의 60% 정도를 대출 한도로 산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계림2구역의 적정 이주비는 9000만원 정도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시공업체는 세대당 1억 5000만원을 산정해 담보가치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주변지역의 계림7구역 6000만원, 학동4구역 7000만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높은 편이다.

계림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은 오는 17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기존 시공업체 해지와 새로운 시공업체 선정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

금호타이어 매각 안개속으로

협력업체, 매각 반대 집회...대선 공약 이행 촉구

더블스타 '상표권 조건' 거부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임직원들은 12일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해 "문제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금호타이어의 해외 진출 매각을 반대했던 대선 공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를 강구해달라"고 밝혔다.

임·직원 50여 명은 이날 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집회하고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선거 이후 금호타이어의 매각을 막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호남기업 죽이기와 불공정한 매각절차를 사실상 묵과하며 호남경제 활성화에 대한 공약과 지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금호타이어를 중국 업체에 매각하는 것은 5000여명의 금호타이어 임직원뿐 아니라 약 190개, 1만명에 달하는 협력업체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며, 지역 내 사업장 축소와 브랜드 가치 저하로 인한 매출의 감소, 협력업체의 경영악화로 이어져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와 집권여당, 산업은행은 협력업체들의 우려와 지역민들의 기대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금호타이어의 더블스타 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하루속히 지역경제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

한편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이날 주주협의회를 열고 박삼구 회장이 제안한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더블스타의 입장을 공유하고 기존의 조건으로 상표권 사용을 허용해줄 것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재차 요구하기로 했다.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가 이자도 못 낼 만큼 경영이 안 좋은 상황에서 상표권 사용료를 올리는 것은 심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입장을 채권단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357.87 (-23.82)
- ↑ 금리 (국고채 3년) 1.70% (+0.07)
- ↓ 코스닥 664.86 (-9.29)
- ↑ 환율 (USD) 1127.30원 (+4.10)



광주상의 NCS 기업 활용 컨설팅 착수... 광주상공회의소는 12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2017년 NCS 기업활용 컨설팅사업'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광주상의 제공)

호남통계청, 경제통계 통합조사

광주·전남·전북·제주 4만2000개 업체 도소매 동향 등

호남지방통계청은 경제구조와 분포·경쟁력 강화 등을 파악하기 위해 14일부터 7월18일까지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의 약 4만2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7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가 편리하도록 인터넷조사도 병행한다. 조사 내용은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사업 실적 등 기본 항목과 매장면적, 객실 수, 품목별 출하·수출액 등 업종별 특성항목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중복 조사 최소화하 시 업체의 응답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7종의 경제통계조사를 동시에 실시한다.

호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급변하는 경제·사회구조에 대응해 정부가 각종 경제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사 분야는 기업활동, 도·소매, 서비스업, 운수업, 광업 및 제조업, 서비스업 동향, 광업 및 제조업 동향이다.

명당찾아 삼천리

한국에서 **가장 좋은 집터(양택)**와 **가장 좋은 묘터(음택)**을 **찾아줍니다!**

(정호) 안성준 010-3342-6338

특허방수

2중압박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명예홍보이사 탤런트 이영후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www.ipalg.co.kr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